

## 최남선의 「소년」 잡지에 나타난 세계지리의 표상 방식

김민지

서울 명덕초등학교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존의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지리사상이 지배하던 지리교육은 개화기를 전후해 서구적인 형태의 근대 지리학으로 전환되었다. 개화기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문물에는 다수의 지리 서적 및 지도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유입은 세계를 바라보는 대한 소년들의 시야를 확장시켰고, 세계의 다양한 지리적 특징과 현상에 대한 민중들의 호기심도 배가시켰다. 개화기에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지리학은 주로 단편적 지리 현상과 지식들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전문적인 계통과 체계를 바탕으로 한 정통 지리학이라고는 할 수 없었으나 막 개화기를 맞이한 조선의 실정에서는 세계의 문화나 관습, 지형에 대한 소개 정도로도 세계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는 데 충분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권혁재(1976)는 오늘날 일반인들이 지리학을 지명이나 산물을 나열하는 학문으로 파악하는 것이 개화기 지리학의 유산이 계속 유지된 측면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즉, 개화기 지리교육은 비록 그 체계가 확립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오늘날 지리교육의 형태의 시초가 되었음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최남선은 신문관을 설립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인 <소년>을 편찬하였다. <소년>지에서 최남선은 “학생은 이 잡지에서 선생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신지식’ 을 얻을 것이며, 교사는 이 잡지에서 ‘교수재료’ 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발간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소년>지에는 세계지리에 관한 다양한 지식들이 사진, 광고, 소설 등 다양한 형태로 실려 있어 당시 소년의 독자들이 세계지리에 관한 지식을 얻는데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별다른 세계지리 교육 수단이나 세계지리에 관한 국정 교과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개화기 당시 <소년>지는 개화기의 세계지리 교육의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매체이다. 따라서 당시 개화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세계지리 교과서라 칭할 수 있는 <소년>지의 세계지리의 표상방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오늘날 지리교육 형태의 기초를 제공한 개화기의 지리사상의 형태를 밝히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1908년 11월 1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1911년 5월 15일 제 4-2호를 마지막으로 출간된 <소년>

지 통권 23권 중 세계지리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소년>지의 권별 세계지리 관련 내용 일람은 <표 1>과 같다.

<표 1> 소년지 권별 세계지리 관련 내용 일람

호수	제목	면수	비고				계(면)
			연재	특집	사진	광고	
1-1	해상대한사①	8	○				6(17)
	봉길이 지리공부①대한의 외위형태	4	○				
	러시아는 어떠한 나라인가	2		○			
	최남선 지리서	1		○			
	대한지지의국지지	1				○	
	나이야가라 폭포	1			○		
1-2	해상대한사②	4	○				7(20)
	봉길이 지리공부②	7	○				
	히말라야 산 설복의 경치	1			○		
	우리가 소생하는 지구별	2		○			
	아메리카는 이리하여 독립하였소	3		○			
	아메리카(아메리카 합중국)	1		○			
2-1	북극빙세계의 장관	1			○		7(24)
	해상대한사③	10	○				
	봉길이 지리공부③	2	○				
	근년까지도 비밀국으로 유명하던 서장	5		○			
	북극탐험사적	4		○			
	삼입도회(베르사이유 왕궁)	1			○		
2-2	삼입도회아시아대륙지도)	1			○		2(9)
	삼입도회(서장위장부진경)	1			○		
2-3	해상대한사④	5	○				3(16)
	북극탐험사적	4		○			
2-4	해상대한사⑤	5	○				3(10)
	북극탐험사적	9		○			
2-5	봉길이 지리공부④북극과 남극	2	○				21(21)
	봉길이 지리공부⑤남극지방	1	○				
	북극탐험사적	8		○			
2-6	프랑스국 파리부 개선문	1			○		4(30)
	해상대한사⑥	4	○				
	봉길이 지리공부⑥	1	○				
2-7	괘남아 소견법(남극 탐험가)	15		○			3(5)
	세계적 지식(영국의 식민지)	10		○			
	해상대한사⑦	4	○				
2-8	이집트근교 삼각주(나일강 범람)	1/2			○		2(5)
	이집트 수도 카이로시	1/2			○		
2-9	해상대한사⑧	4	○				2(5)
	적도지방의 주민	1			○		
	해상대한사⑨	2	○				1(2)

2-10	해상대한사⑩반도와 문화	5	○			3(28)	
	봉길이 지리공부⑦세계 각국의 정치제도	5	○				
	절서 순환과 주야 장단의 리	3					
	지리학 연구 목적	15		○			
3-3	해상대한사⑪	3	○			1(3)	
3-4	초등대한지리학교본	56		○		1(56)	
3-7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1			○	1(1)	
계		247	18	15	10	1	65(166)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소년>지에 제시된 세계지리의 표상방식을 잡지에 제시된 지리적 교육의 요소를 문헌 및 기록물 검토, 내용 분석, 자료의 조직화 등의 방법을 통해 밝혀내었다. 신문관에서 발행한 <소년>이 주요 분석 대상이며, 기존의 <소년>지에 대한 최남선의 행적에 대한 기존 논문과 학술지에 제시된 논의로 이를 보충하였다.

연구자는 <소년>잡지를 탐독하며 소년 잡지에 제시된 세계지리의 내용을 추출하여 위와 같은 목차를 추출해냈다. 각 60쪽 내외의 전체 면수가 1657쪽에 달하는 통권 23권의 <소년>지에서 세계지리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면수는 247쪽에 해당하며 약 15%의 비율을 차지한다. 지리학에 관한 내용이 특정 호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잡지의 연재, 특집 전반에 걸쳐 골고루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지에서 세계지리 내용의 비중 있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소년>지의 세계지리 관련 콘텐츠들을 잡지에 기사로 제시된 표상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연재, 특집, 사진, 광고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선행 작업에 대한 후속 활동으로 실제로 2000부가 넘게 인쇄된 잡지 <소년>이 당시 젊은이들의 세계지리를 향한 인식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세계지리에 대한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담긴 내용을 일람하고 그 내용을 분류한 것을 바탕으로 세계지리사상을 고무시키기 위한 표상방식에 대해 논해보는 것 역시 수반하였음을 밝힌다. 나아가 자료의 분석과 설명방법의 복합적 분석, 세부사항의 참고, 그리고 이에 관련된 사회적 맥락과의 연계성을 이해하기에 중점을 두어 <소년>지가 개화기 세계지리 교육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 하였다.

## II. 개화기 세계지리 교육과 <소년>의 탄생

### 1. 개화기 세계지리 교육

1880년을 전후로 한 우리나라의 지리교육은 과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변화를 맞이하였다. 기존 지리교육은 전통적으로 음양술수와 풍수지리에 의한 지세 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개화기 시작된 근대적 지리교육은 초기에 특히 세계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서구 문물의 도입으로 세계지도와 세계지리서가 국내로 다량 유입되면서 조선인들의 세계인식은 점차 변화한다. 남상준(1992)은 음양술수(陰陽術數), 역학(易學)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던 조선인의 자연관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된 데에는 개화기의 근대 교육, 그 중에서도 지리교육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보았다. 개화기 지리교육은 조선인을 지배하던 '규제원리(regulating principle)로서의 자연관'에서 벗어나 '해방의 원리(libertating principle)로서의 자연관'을 갖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남상준, 1992: 37), 또한 당시 조선인의 사고를 지배해온 중국 중심의 華夷觀(화이관)적 세계관과 中華思想(중화사상)을 타파하였다(서태열, 2005: 146).

## 2. <소년>의 탄생

세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량의 세계지리서가 해외로부터 도입된 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려는 요구에서였다. 당시 도입된 수많은 세계지리서 중 남상준은 한국 근대 초기에 해외실정에 대한 계몽의 기능을 가장 크게 발휘한 세계지리적 저술로 최한기의 <地球典要(지구전요)>(1857), 유길준의 <西遊見聞(서유견문)>(1895), 위원의 <海國圖志(해국도지)>(1842), 헐버트의 <스민필지>(1891) 네 가지를 선정하였다(남상준, 1992: 139-140). 그러나 <해국도지>, <서유견문>, <스민필지>와 같은 책들은, 그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지나치게 학문 중심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정작 어린 학생들의 지리 교육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지리서들은 서술 방식이 획일적이고 정보의 나열 수준에서 그치고 있으며, 보충 자료 없이 서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대중적으로 읽히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최남선은 신문관을 설립하고 1908년 11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잡지인 <소년>을 편찬한다. 을사조약 이후 공식적 지리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상황에서 세계지리 교육을 통한 민중 계몽을 필요성을 절감하던 최남선은 비공식적 교과서로서 잡지 <소년>이 우리 대한의 소년들에게 세계지리 지식을 전달해줄 수 있는 매개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간행하였다. 실제로 최남선은 <소년>지의 발행 목적에 대해 '시대의 사조(思潮)를 귀일(歸一)하는 근본으로 신흥(新興)하는 교육계(教育界)에 구체(具體)한 教科書(교과서)를 공급하려함이 제일착의 기획이었다(소년 1-1권 서문)'라 언급하고 있다. 즉 최남선은 자신이 발간하는 <소년>지가 교과서로 사용되기를 희망하였던 것이다(설현욱, 2012: 31). 남호엽(2007)은 <소년>이 태어난 이유를 대한제국의 힘을 강화하고 세계 문화에 공헌할 수 있는 주체의 형성에 있다고 파악한 바 있다.

<소년>이 개화기 민중들에게 미친 영향은 상당하다. 비록 창간호는 독자가 겨우 30-40명이 지나지 않았으나 1년 후에는 200여부로 늘어나고(정진석, 2001: 369-370), 곧 그 발행부수가 1000부에 입각하면서 당시 독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근대계몽기 이 잡지는 지리교육의 교과서로 여겨졌으며 실제로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는 학교도 많았다(김노연, 1992: 93-96; 권정화, 1990: 18). 김영훈(2010)은 개화기 교과서 속의 세계와 역사를 다루는 연구에서 최남선의 <소년>이 당시 만국지리 교과서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소년은 신민회와 청년학우회 등 여러 민간 계몽단체의 '기관지'로 사용되기도 하여 학생뿐 아니라 성인 계층까지 독자로 포섭하는 범국민적 교양잡지로 성장하게 된다.

우리 대한으로 하야곰 소년의 나라로 하라 그리하라 하면 능히 이 책임을 勘當(감당)하도록 그를 教導(교도)하여라. 이 잡지가 비록 덕으나, 우리 同人(동인)은 이 目的(목적)을 貫徹(관철)하기 爲(위)하야 온갓方法(방법)으로써 힘쓰리라. 소년으로 하야곰 이를 넘게하라 아올너 少年(소년)을 訓導(훈도)하난 父兄(부형)으로 하야곰도 이를 넘게하여라(소년1-2: 4).

위에서와 같이 최남선은 애국과 계몽의 주체로 소년을 내세우며 새로운 시대 사회적 주체로서 소년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한다. 소년을 ‘훈도(訓導)’한다는 표현에서 본 잡지가 교과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부형(父兄)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라’는 데에서 예상 독자의 범위가 폭넓게 설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최남선은 잡지의 발간사에서 <소년>지의 독자를 소년 및 부형까지 설정함으로써 ‘교육’잡지 혹은 교재로서의 역할 동시에 국민교양지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기도 한다(남호엽, 2007: 205).

세계지리에 대한 소양과 역사지리에 대한 열정적 관심을 바탕으로 최남선은 <소년>에 세계지리적 요소를 다량 포함시켜 다양한 지리적 주제와 자료를 지면에 실음으로써 국민계몽수단으로서 세계지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발간동기를 밝히는 글에서도 그는 “학생은 이 잡지에서 선생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신지식’을 얻을 것이며, 교사는 이 잡지에서 ‘교수재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읽고 배우기를 권장하고 있다(김노연, 1992: 47).

최남선은 외부에 대해 얕으로써 조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소년>에서 지리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지도와 조선 지도를 제시하였으며, 세계를 향한 진취적인 자세를 기르기 위해 여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물은 ‘봉길이 지리공부’나 ‘해상대한사’로 축적되었고, 여기에서 최남선은 세계지리와 역사지리학을 통해 조선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있다(홍순애, 2011: 35).

### Ⅲ. <소년>지의 세계지리 교육사상

#### 1. 지리교육의 당위성

최남선은 지리교육을 통해 계몽사상을 펼친 대표적인 개화기 계몽 사상가이다. 그는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 국내의 지리 상식 보급의 필요성을 확신하였고, 이러한 그의 노력은 <소년>지 전반에 걸쳐 잘 드러난다(엄정선, 2007: 26). 개화기 신교육의 도래에 따라 지리학의 중요성과 지리교육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최남선은 개화기 새로운 지리 지식 교육을 위한 지리서를 출간하며 이를 통해 지리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는 의미의 글을 실었다. 최남선은 위태로운 조선의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지리학이 기초가 되는 학문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地理學(지리학)은 곧 世界(세계)의 大勢(대세)를 敎示(교시)하여 一國民(일국민) 一個人(일개인)의 動靜作止(동정작지)를 指導(지도)하는 者(자)로 또 各國(각국) 民族(민족)의 邦土(방토), 物產(물산), 性情(성정), 政法(정법), 勢力(세력) 등을 敎示하는 世界的(세계적) 知識(지식)의 敎科書(교과서)니라(소년 34: 7).

즉, 지리학 자체로도 중요한 과목이나 세계적 지식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지리학도 그 가치가 매우 중대함을 ‘세계적 지식의 교과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부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2. 세계지리교육의 필요성

<소년>은 지식 교육에 대한 45편의 글 중에서 18편을 지리 교육에 할애하고 있고 이 중 6편에서 세계 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12편의 한국지리 내용을 다루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학습 범위를 세계로 확대 시키는 것은 미처 외국의 문물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데다, 상당기간 쇄국정책의 영향으로 세계 물정에 어둠던 당시 국민들의 계몽을 위하여 세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 보급이 필요함을 자각한 까닭이었다. 엄정선(2007: 27)은 최남선의 근대지향 교육사상 중에서 <소년>을 통해 특히 펼치고자 한 것으로 '세계정신계몽사상'을 들었다. 그는 많은 분량의 세계지리 콘텐츠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표상하며 대한의 소년들에게 대한의 폐쇄적·구시대적 현실인식을 개선하는 세계 계몽 의식을 심어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리학으로 하여 우리가 가장 健全(건전)한 世界觀念(세계관념)을 涵養(함양)할 수 있으니, 國家(국가)가 홀노 일개 獨立人(독립인)인 社會(사회)가 아니라 地球(지구)도 또한 한 有機的(유기적)獨立人(독립인)이니 地方(지방)이 一國(일국)의 一部分(일부분)인 것처럼 一國(일국)도 또한 地球(지구)란 한 獨立人(독립인)의 일부에 지나지 못하니라(소년 2-10: 92).

여기서 최남선은 대한의 소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지리를 통한 세계적 지식을 익혀 세계 속의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오직 자국만을 위해서 실력을 양성하는 것을 옹졸한 일로 취급한 최남선은 인류 전체를 위하여 힘쓰는 것이 진정한 세계시민의 자세임을 강조하였다. 지리학을 배우는 것은 곧 세계적인 대세를 나타내 따라감이요, 개인으로서 혹은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리키는 지표가 되는 것임을 나타내며, 세계 속의 대한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지리학을 배울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소년>지의 세계지리 표상 내용

<소년>지를 통한 개화기 세계지리 교육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게재된 다량의 세계지리 관련 콘텐츠를 계통지리학(systematic geography)과 지역지리학(regional geography)으로의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계통지리 중심의 세계지리 표상방식

<소년>의 기사 중 계통지리 관련 기술 내용은 다시 자연지리적 접근법과 인문지리적 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지리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기사는 '북극·남극이란 어떠한 곳인가'에서 상·중·하 3편에 걸쳐 기후대를 구분하는 방법과 그 기후대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다루는 내용, 세계 3대 사막과 같이 지형에 대한 항목을 다루는 부분, '우리가 소생하는 지구별'에서 지구가 구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지구과학 원리 내용, 기후대를 구분하여 열대지방의 환경과 식생에 대해 기술한 내용, 지구상 절기와 계절의 변화를 다룬 기사 등이 해당된다.

인문지리적 접근법 하에서는 ‘반도’라는 지형의 정치, 문화, 경제, 무역 등의 인문적 현상을 다루는 ‘해상 대한사’가 있으며, 당시 현존하던 정치제도를 3가지로 분류하여 세계 각국의 정치제도를 그 특징에 따라 분석한 내용이 있다.

#### 가. 자연지리 중심의 접근법

자연지리적 접근에서 이루어진 세계지리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자연지리 중심의 접근법에서는 지리학 기본 원리와 보편적 지리 현상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지구과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 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고, 기후와 지형을 세계 여러 지역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였다.

<표 2> 자연지리 중심의 세계지리 내용

구분	항목	주요 내용
지구과학 기본 원리	북극, 남극이란 어떠한 곳인가	지구의 절대적 위치와 수리적 위치 기후대의 구분방법과 특징 -열대, 한대, 온대 기후 구분 양 극지방의 특징
	우리가 소생하는 지구별	지구가 구슬같이 둥글다고 하는 증거 서술
	절서 순환과 주야 장단의 리	일년 절기의 변화와 밤낮 길이 변화의 원리
	지구상의 가선 (초등대한지리교본)	지구별의 상태, 크기, 운동, 축, 극, 적도, 경선, 위선, 경도, 위도, 회귀선, 극권, 대의 개념
기후	세계화설	열대지방 기후의 특징
	초등대한지리교본	기후대에 따른 주민들의 성격 묘사
지형	세계화설	세계 3대 사막
	초등대한지리교본	오대양 육대주

#### 나. 인문지리 중심의 접근법

<소년>지에서 인문지리적 기술은 주로 <소년>지의 연재기사인 ‘해상대한사’에서 나타난다. 이 접근법은 정치제도 및 반도 지형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인문환경적 요소를 강조하여 다루었다. ‘해상대한사’는 대한의 반도적 특징, 반도의 특징, 반도와 문화, 해륙문화의 장성처로서 반도, 문화의 기원처로서의 반도, 세계 통일자로서의 반도로 세분화하여 세계지리를 표상하는 등 반도의 지정학에 대해서 표상한다. 또한 정치라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인문지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 ‘세계 각국의 정치제도’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치제도를 3가지로 나누어 소개함으로써 대한이 추구해야할 정치체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표 3> 인문지리 중심의 세계지리 내용

구분	항목	주요 내용
문화	반도와 문화	문화의 발상지이자 전파자로서의 반도가 기능함을 예증함.
	해륙문화의 장성처로서의 반도	해양과 대륙 양 문화의 전파자와 소개자로서의 역할을 예증함.
	해륙문화의 집대성처로서의 반도	해륙 문화의 집약과 책임, 세계문화 발달사를 집대성하는 반도의 기능을 나타냄.
	문화의 기원처로서의 반도	여러 가지 문화의 기원처임.

정치	세계 통일자로서의 반도	제국주의의 근거지로서의 반도를 나타냄.
	세계 각국의 정치제도	입헌제, 군주제, 공화제 중 우리나라는 입헌제를 추구해야 함.

### 3. 지역지리 중심의 세계지리 교재화의 논리

지역지리적 접근법은 특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정 면적으로 범주화한 지역의 지역성을 밝히는 것을 주요 방법으로 한다. 최남선의 <소년>지는 세계지리적 기술 내용을 표상하는 방식으로 계통지리보다 지역지리의 접근법을 선호하였는데, 지역지리의 접근법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를 국지적 장소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접근법, 대륙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 우리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다루는 접근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가. 국지적 장소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

국지적 장소를 중심으로 한 접근에서 최남선은 비교적 협소한 장소와 특정 지역의 지형적 특징과 기후, 문화와 관습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접근법은 그 주요 대상의 성격에 따라 자연 환경, 건축물, 생활 문화의 근거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주요 대상에 따른 세계지리 기술 내용의 종류와 주요 기술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국지적 장소와 지역의 세계지리 내용

구분 기준	주요 지역	중심 내용
자연 경관	히말라야	히말라야 산맥의 위대함을 언급함.
	후지산	후지산의 지형과 경관의 아름다움.
	나일강	문명 발상지로서의 가치를 가진 이집트의 카이로의 소개 및 나일강에 대한 주요한 설명이 이루어짐과 더불어 피라미드의 사진을 게재함.
문화 경관	동조궁	동조궁의 문화적 가치를 다룸.
	금각/송도	일본 명소로서 소개함.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의 위치 및 무역상 가치.
	베르사이유 왕궁	베르사이유 왕궁의 아름다움.
생활 문화 근거지	유구국	유구국의 위치와 크기 및 산업과 무역.
	말레이 반도	등나무 생산과 수출 현황.
	방콕 시가	기후와 식생에 대한 설명 및 불교 사원이 많음.
	켈커타 시가	4천년 전 개명하였으나 오늘날 영국의 식민지로 주권을 빼앗김.
	파푸유 도	파푸아뉴기니 원주민들의 수상 가옥. 현재 영국과 독일의 식민지임.
	자바섬	자바섬의 주요 생산품과 많은 화산섬. 계절에 따른 다양한 식생.
	카우카쓰	러시아의 식민지이며 면적, 인구 및 병정들에 대한 사진이 게재됨.



## 나.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접근법

두 번째로는 국가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세계지리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접근법이 있다. 대상 국가로는 서장국(티베트), 중국, 러시아, 영국 등이다. 국가별로 설명할 주요 항목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함에 있어 체계나 구성상에 있어 공통된 통일성은 찾기 힘들다. 이는 <소년>지가 개인이 편찬한 잡지이기 때문에 국가별 지리 지식을 통일된 체계와 분량으로 다루기보다는 최남선 개인의 지식 및 정보량에 거의 전부를 의지하여 각 국가별 지리현상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였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가의 특색에 맞게, 혹은 최남선 개인의 지식 및 정보량의 종류에 부합하게 서술 항목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다루고 있는 세계지리 내용을 분석하면 <표 5>와 같이 나타난다.

<표 5> 국가 규모의 세계지리 내용

구분 기준	주요항목	중심 내용
티베트	지형상 특징	높은 지리적 고도 및 기후와 지형에 따른 산업의 특징을 기술함.
	문화	라마교의 성행 및 정치체제 설명.
	티베트인의 특성	여러 인종이 혼합되어 있으며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며 복수심이 강함.
중국	티베트의 이습	일처다부제와 유희설 및 장례 풍습의 독특함.
	위치 및 크기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로 넓음.
	산업	석탄 매장량이 매우 많고 공업이 발달함.
	중국인의 특성	상업적으로 뛰어나고 과거의 역사에 기대어 지나치게 자부심이 강함.
영국	문화제 및 자연경관	만리장성과 한구가 있음.
	배울 점	세계 어디에서든지 살아남는 근력과 부지런한 성정.
	영국의 속지	전 세계에 가장 넓고 요긴한 속지를 소유함.
러시아	영국인의 성향	거대한 속지를 소유하게 한 영국인들의 진취성, 도전 의식, 모험심을 칭찬함.
	위치와 면적	유럽과 아시아 대륙 북쪽을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104배 크기의 면적을 소유함.
	인종 및 인구	통구스족의 후손으로 우리와도 피가 섞인 민족이며 중국, 영국에 이어 3번째로 인구가 많음.
	지정학적 의의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동방 경영의 책원지가 되며 우리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함.

## 다. 대륙 규모의 접근법

최남선이 전해주고자 한 세계지리 지식을 대륙 단위로 분류하면, 아시아, 북극과 남극, 유럽 및 아메리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소년>지는 지리 교과서 전용으로 만들어진 교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과정 하에 내용 전달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아시아 대륙 전도는 세계정세에 대해 한눈에 살펴보기 위하여 제시된 것이며, 서양 각국의 표지물에 관한 사진과 그에 대한 짤막한 설명은 본 연구자가 편의상 분류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다. 북극과 남극 대륙에 관한 지리적 내용을 독자들이 살펴볼 수 있었던 것도 탐험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리적 묘사 덕분이다.

〈표 6〉 대륙을 중심으로 한 세계지리 내용

구분 기준	주요항목	중심 내용
아시아	아시아 대륙 전도	아시아 대륙의 지도를 통해 현재 대한의 처지와 아시아 대륙 내의 정세를 파악하게 함.
북극	북극 탐험 사적	미국 ‘폴라리스’ 호의 북극 항해 모험기를 서술함으로써 북극의 지리적 환경을 전달함과 동시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심과 모험심을 자극함.
남극	쾌남아 소견법	‘최신남극탐색가’ 라는 부제 아래 영국의 ‘넴로드’ 호가 남극에서 밝혀낸 화산 지형의 특성과 고원지대의 특징을 밝혀냄을 전달함.
유럽 및 아메리카	세계화설	유럽 및 미 대륙 주요 도시별 상징물의 역사, 문화적 가치.

**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설정을 통한 접근법**

최남선이 앞서 우리가 세계적 지식을 얻어야 하는 것은 남을 알고 그를 통해 나를 알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였듯이, <소년>지에 실린 세계적 지식은 우리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고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 당시에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아메리카와 일본을 심도 있게 다루며, 반도국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징상 크고 작은 관계를 맺고 있는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의 정세에 주시하고 있기도 하다.

〈표 7〉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본 세계지리 내용

구분 기준	주요항목	우리나라와의 관계
아메리카	미국인의 민족성	자유를 중요시하며 매우 진취적이며 민족적 성정이 우수하여 우리 민족에게 주는 시사점이 큼.
	무역	공업과 상업이 발전하였으며 우리나라 무역 대상국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함.
	대미관	당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대한은 미국 독립의 역사를 통해 교훈점을 얻어야 함.
일본	무역	우리나라 무역의 10분의 7을 차지함.
	대일관	친구이자 경쟁자로서의 관계 정의 및 관계 유지의 필요성 강조.
만주지방	역사	러일전쟁이 일어났던 곳이며 우리 조상의 흔적이 담긴 곳임.
	현재 상황	만주와의 철도 연결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부차적 영향에 대하여 서술함.

**V. <소년>지의 세계지리 표상 방법**

**1. 세계지리 내용의 표상 목표와 관점**

<소년>지의 세계지리 기술에서 나타나는 표상 방식의 특징을 그 목표와 관점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지는 세계지리를 통한 계몽 의식의 지향점을 서구로 삼고 그 내용을 전개하였다. <소년>에 나타난 세계지리 관련 내용 중 서구를 언급한 기사는 비서구를 언급한 기사에 비해 약 3배 가량 많다. 유럽, 아시아, 미주를 비롯한 서구에 대한 기사의 등장 횟수는 전체의 54.3%에 달하고, 아시아를 비롯한 비서구 지역에 관련된 기사는 약 18.1%에 불과하다(서라미, 2007: 61). 비단 세계지리 관련 내용 기사 외에도 유럽에 관한 기사는 격언, 전기, 문학, 단순설명, 논설 등의 장르를 불

문하고 37.1%에 해당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서라미, 2007: 61), 이를 통해 최남선이 유럽을 모델로 삼아 대한의 계몽 운동을 전개해나가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소년>지의 교과서적인 성격을 감안했을 때 세계지리 기술 내용은 교육적 목표 설정에 있어 지식적, 정서적, 실천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지구과학적 지식을 통합한 자연지리적 및 인문지리적 지식의 내용을 풍부하게 다루었고, 비단 지식적인 측면 외에도 최남선은 <소년>지에서 정서적인 측면의 교육 효과를 의도하였다. 나아가 ‘북극탐험서적’이나 ‘남극탐험가’에서 나타나는 오지 탐험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모험을 극찬하고 글의 말미에 대한 소년들에게 모험과 탐험 정신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글의 행간에는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나아가라는 실천적 변화를 촉구하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

<표 8> <소년>지 세계지리 표상 목표

목표항목	내용	예시
지식적	지구과학적 지식 및 기후대, 세계 각국의 상세한 정보	축, 경선과 위선, 극, 열대, 사막, 세계 각국의 수도, 표지물, 국가의 위치, 산물, 속지
정서적	애국심 자극 및 시, 사진을 통한 감화	반도국의 우월함 후지산의 예찬 시
실천적	도전 의식 촉구 및 근대적 형태의 제도 채택	태서 각국으로 가는 법 대한의 입헌제 도입

셋째, 최남선은 세계지리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사실 전달과 더불어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내세우는 모습을 빈번히 나타낸다. <소년>지는 최남선이 거의 모든 작업을 홀로 수행한 1인의 성과물로서 의도성을 가지고 교육 방향을 전달하였으며, 거기에는 최남선의 교육 사상과 목표가 반영되어 있다. 해상대한사 전 편을 통해 그는 반도를 예찬하고, 반도국인 우리나라 실정에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내용이 전편을 통해 드러나 있다. <소년>지에 드러나는 편집자의 상당한 주관성은 기사 작성, 출판, 편집 등의 모든 부분에서 그의 독보적인 영향 하에 이루어졌기에 나타난 결과이다. 최남선은 유럽과 미국 같은 서구 열강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반면에, 중국 일본 국가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을 병렬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티베트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최남선은 그 당시 이미 서구적 사고관과 약육강식의 세계정세를 냉철히 파악하여 우리나라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서기를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세계지리 기술 내용을 통한 계몽 의식과 대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치 체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최남선은 전제국, 입헌국, 공화국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당시 조선이 채택하고 있는 전제국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며 비판한다. 그리고 공화정치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좋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입헌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자주성을 가지고 국가와 조화를 이루어 일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정치 제도임을 견지하며, 우리나라도 입헌제로 정치 체제를 전환시켜 나가야 함을 주장한다.

이와 같이 최남선은 당시 조선이 처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질적 사상과 학문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 타파하고 세계로 나아갈 것을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 <소년>지 발간의 목적 속에는 객관적 지식의 전달

그 이상의 조선 현실의 개선과 발전이라는 원대한 포부가 담겨 있었음을 <소년>지 곳곳에 드러난 그의 주관적 견해를 통해 알 수 있다.

## 2. 세계지리 내용의 표상 매체와 형식

지리과는 학문의 성격상 사진, 그림, 지도 등의 참고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시 지리학 교재로 사용하였던 <스민필지>와 같은 지리교육의 서적들은 교과서적인 성격이 강하여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 어렵고 흥미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던 반면에 <소년>은 그 매체와 구성 형식의 특성이 차별적이었다. <소년>지의 세계지리 표상 매체와 형식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지는 지도, 사진, 그림, 그래프 등의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잡지의 첫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남호엽, 2007: 205). 이러한 시도는 당시의 교재 출판 상황에 비추어 매우 파격적인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친숙하게 접하는 잡지들이 과감하게 사용하는 시각 이미지는 그 기원을 <소년>지에서 찾을 수 있다(남호엽, 2007: 207). 시각 이미지는 그 자체로 텍스트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이미지의 선택은 잡지 편집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소년>지에 사용된 세계지리 표상의 매체는 <표 16>과 같다.

<표 9> 세계지리의 표상 매체

매체	내용	사용 의도
지도	대한의 외위형체(사물에 비유한 지도), 아시아 대륙 전도, 영국의 식민지 지도	영토에 대한 파악 및 객관적 형태의 개념적 인식
그림	절기 변화와 밤낮 길이 원리 나타내기	지구과학적 원리 설명
사진	세계화설에서의 세계 각국 표지물 세계 주요 경관(나이아가라 폭포, 히말라야, 나일강) 및 세계 각국의 생활모습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만한 경이로운 광경의 시각적 유도
그래프	오대양과 육대륙의 면적 원그래프	대양과 해양 분포의 파악 용이

둘째, 최남선이 <소년>지에서 세계의 지리적 현상을 표상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거나 우리나라 상황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협소한 국토에서 살아가는 대한의 소년들에게 세계 여러 지형과 지리현상에 대한 실제적인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 이와 같이 자국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해 관련 내용을 표상한 것이다. 비교 형식의 설명은 <소년>지의 세계지리 관련 기사 중에서도 세계 유수의 지형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세계 최대 길이의 강, 세계 최고 높이의 산 등과 같이 그 규모가 당시 대한 소년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크기를 가졌을 때 우리나라의 몇 배라고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인 규모를 추측해 볼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세계의 광활함에 대한 경이감과 놀라움을 준다.

셋째,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예시를 사용하여 세계지리 내용을 전달하였다. 독자들에게 낯선 세계지리를 보다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최남선의 노력은 <소년>지 곳곳에 등장하는데, 지구표면의 각 기후대의 면적 수치를 비교함에 있어 정확한 면적의 넓이를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어 전달력을 높이기도 하

였다. 그리고 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장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반도의 문화 기원처, 세계 통일자로서,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역사상 예시를 들어 기술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앞서 최남선이 <소년>지가 지리교육의 교과서로 사용되기를 희망하였다는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 보다 효과적인 지리 학습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잡지라는 매체상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융통성 있게 다룰 수 있었다. 잡지는 독자에 의해 취사선택되는 매체이므로 독자의 기호와 흥미를 충족시키는 것이 기본 요건이다. 기존의 지리서들이 근대 지리 지식의 전달에 주력하여 위치, 면적, 식생, 산업 등의 일관된 정보들을 주로 전달함과 다르게 <소년>지는 세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자유롭게 다룸으로써 잡지 본연의 특성에 부합시키려 하였다. 미국보다 대한이 이민가기 좋은 점, 세계 여러 민족의 성장과 특성, 미지 대륙에 대한 탐험기, 세계의 독특한 지형과 문화재 등과 같은 정보를 다채롭게 싣고 있어 세계를 향한 대한 소년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 VI. 결론

개화기 지리 교육의 새 지평을 연 <소년>은 다양한 세계지리의 내용과 지식을 잡지에 실어 전달함으로써 대한의 소년들에게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진취성을 갖도록 한 실천적인 계몽의 매체였다. 급변하는 세계적 대세를 따라감에 있어 세계적 지식을 익히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여 도태되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었고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유독 지리적 지식에 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연유로 1908년 신문관에서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잡지 <소년>은 잡지라는 매체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세계지리를 표상하였다.

<소년>은 지식적, 정서적, 행동적 목표 하에 세계지리의 콘텐츠를 표상하였고 이는 <소년>의 독자들에게 하여금 지리적 지식 습득과 정서적 감화 뿐 아니라 계몽 의식의 실천과 세계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을 장려한 행동적 측면이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와 전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남선이 거의 모든 제작과 편집을 담당한 1인 잡지였다는 사실은 편집자의 주관성이 잡지 전반에 걸쳐있는 필연적 이유가 된다. 최남선은 세계지리 교육의 지향점을 '서구'로 설정하고, 대한의 처지에 대한 긍정적 서술을 통해 애국 계몽 의식을 길러 결국 서구와 같이 문명화된 근대 국가를 이룰 것을 강하게 염원한다. <소년>에서 최남선은 세계지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예시를 많이 들어 독자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였고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미처 접촉하지 못한 세계 각국에 대한 감각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하였다. 더구나 잡지의 '잡종성'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지식을 백과사전식으로 자유롭게 게재함으로써 독자들의 지지를 받는 당대의 대표적인 대중매체로 자리 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소년>지 전반에 걸친 세계지리 교육은 결국 '계몽'으로 요약된다. 투철한 계몽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내용이 가득하다. 최남선은 세계 각국의 지리적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늘 우리 민족의 발전 가능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다른 나라로부터 얻는 교훈을 명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우리 민족의 나태한 기운과 게으른 성정을 버리고 대한의 소년이 세계 각국에 대한 각성을 통해 보다 강성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 < 참고 문헌 >

- 권동희 외 13인(2000). **한울지리학강좌 지리학 강의**. 한국지리정보연구회. 한울아카데미
- 권정화(1990). 최남선의 초기 저술에 나타나는 지리적 관심 : 개화기 육당의 문화 운동과 명치지문학의 영향. **응용지리**. 제 13권. pp.1-34
- 권혁재(1976). 지리학. **한국현대문화사대계Ⅱ**.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 193-235
- 권혁재(1982).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의 지리학과 지리교육**. 한국 교육사 연구의 새방향. 서울: 집문당.
- 김강성(1963). **인문지리학**. 서울: 법문사
- 김노연(1992). **최남선의 사회교육 사상과 활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 논문.
- 김부선(2006). **지식의 구조에 따른 지역지리와 계통지리의 내용분석 : 중등자연지리 내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김연옥(1990). **사회과 지리교육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훈(2010). 개화기 교과서 속의 세계와 역사: 만국지리(萬國地理)와 만국사(萬國史)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6집2호. pp.5-30
- 남상준(1988). 개화기 근대교육제도와 지리교육. **지리교육논집**19권 pp. 99-111
- 남상준(1999). **지리교육의 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 남호엽(2007). <소년>에 나타난 계몽의 지리학: 봉길이 지리공부를 중심으로. **황실학논총(9)**. pp.203-224
- 박숙경(2007). 신문관의 소년용 잡지가 한국 근대 아동문학에 끼친 영향. **아동청소년문학연구(1)**. pp.115-138
- 배장오(2008). **현장연구방법**. 서현사
- 서라미(2007). **개화기 아동잡지 <소년>연구. 문명과 민족 담론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서주실(2008). **초등학교 세계지리 단원의 내용 조직 방법**. 서울교육대학교 석사논문.
- 서태열(2005). **개정판 지리교육학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 설현옥(2012). **육당 최남선의 「소년」 지 연구: 근대인식과 전통인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 논문
- 안재섭(1997). 개화기 지리지식의 사상적 원류와 지리교육. **지리교육논집** 37. pp.107-117.
- 엄정선(2007). **<소년>지의 '봉길이 지리공부'에 나타난 최남선의 지리교육사상**.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 오문석(2010). 문학사 교육과 문학 문화: 최남선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49집pp. 83-112
- 임덕순(1993). **지리교육원리: 이론과 적용**. 서울: 법문사
- 장보용(1970). 개화기의 지리교육. **지리학5**. pp. 41-58
- 정용화(1998). **유길준의 정치사상 연구: 전통에서 근대로의 복합적 이행**.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정진석(2001). **역사와 언론인**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윤정(2007). 잡지<소년>과 국민문화의 형성. **한국현대문학연구** 21. pp. 9-44
- 최병두 외 10인(2008). **인문지리학개론**. 한울아카데미
- 최남선(1969). **영인본 <소년>**. 문양사
- 홍순애(2011). 근대초기 지리학의 수용과 국토여행의 논리-소년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34집. pp. 33-53